

시선

사설

민주적 총장 추천 계획은 성립했나

일단 결과는 나왔다. 총장 후보 추천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다. 총장 후보 선출 계획이 2안으로 알려진 구성원 단체별 추천안으로 최종 의결됐기 때문이다. 긴 논의의 끝이 보이는 현 상황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우리 손으로 70년 만에 총장을 뽑는 진일보한 모습에 다가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기 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절차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구성원 대표단과 다수 구성원이 의아해하는 동문 배제 문제다. 동문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총장 후보 추천 계획 논의 초반 당시 약 15%의 투표 반영률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투표 반영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자 결국 4% 까지 투표 반영률의 양보가 이뤄졌다. 약 11%의 투표 반영률이 없어진 것이다.

반면, 교수의회는 1안에서 68%의 투표 반영률을 확보했다. 교수의회 소식지를 통해 그 동안 나머지 구성원 단체 및 전 교수의회 의장이 줄곧 강력하게 주장해온 53.8%까지 떨어졌던 교수 투표 반영비율을 약 15%나 올렸으니 엄청난 성과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문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던 투표 반영률 중 11%를 양보하면서까지 학교의 새로운 총장을 뽑는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렇다. 동문은 약 11%의 투표 반영률을 통해 이번 총장 투표에 강한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9월 6일 학내 구성원 대표자 회의에 어떠한 양해의 말도 없이 회의

에 배제됐다. 대학은 동문 배제 이유를 논의 시간의 촉박함으로 설명했다. 시간의 촉박함은 내부 구성원의 합의 과정이 치열했다는 반증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그것이 이전부터 협의를 해오던 구성원의 배제로 결론이 난 것은 아무래도 아쉽다.

또한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의료원 노조)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원 노조는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총장 후보 추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명확한 유권 단체이다. 하지만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같은 이유와 단순히 ‘학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권 단체 또한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 투표권은 주지만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선 배제된 것이다. 묘한 과정이다.

어찌됐든 결과는 나왔다. 이제 와서 과정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며 결과를 반복하는 것은 늦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장애물이 많았다. 하지만 구성원의 대표자인 총장을 뽑는 자리에서 구성원 모두가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한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일부에서 지적하듯 총동문회의 각종 성명전이 구성원의 피로감을 높여왔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동문은 여전히 학교에 기여하는 주요 구성원 중 하나다. 지금의 방안은 결국 계속해서 구성원 간 분란과 뒷말을 만들어 낼 여지가 높아 보인다. 처음 내세웠던 민주적 총장 선출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만평 - 생명과학대학 장학금 휴학생 수혜·대리수령 논란



양치기 소년 이야기의 진실, 누가 진짜 양 떼를 죽였나

세시봉

김지원 (서울뉴스팀장)



어린 시절 우리에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필수교양과 같았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두 번이나 언덕에 올랐다. 그러나 세 번째에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 오르지 않았고 그들은 양 떼를 잃었다.

조금 다르게 보면 어떨까? 이야기에서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경보 시스템이다. 사실 소년이 처음 거짓을 외쳤을 때 언덕에 올랐던 이들은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양 떼를 잃었다. 문제 있는 시스템을 방관한 죄를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 아프게 겪은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고장 난 경보기를 탓하며 화를 낼 뿐 다시 언덕을 내려간다.

방관의 죄를 다시금 짓는 셈이다. 언젠가, 언제든, 그러나 반드시 아픈 희생이 반복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근 우리신문은 행정상의 구멍을 여럿 보도했다. 먼저 지속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대학원생 조교 장학제도(조교제도)가 있다. 사실상 조교가 노동자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과 같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심지어 신분상 학생인 조교가 학생으로서 권리까지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 1학기부터 일방적으로 노동시간과 장학금을 함께 줄이는 형태의 조교제도를 적용해 공분을 샀다.

세월의 풍파가 만드는 시스템 구멍
본질적 문제 외면하는 것도 ‘방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색맞추기식 개편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어 지난 8월 조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와 학교 간 소통의 부재로 근무시간 산정과 기타 지원 등 세부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개편안 발표 후 이 과대는 조교 배치를 미룬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학생들은 조교가 필요한 실습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본질적인 조교제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충분히 반복될 수 있다.

최근 우리신문은 행정상의 구멍을

지난 2017년에도 우리신문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기사에는 “학과 사정에 맞지 않는 폐강기준 때문에 학생들과 학과 행정실 모두 소모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다”는 음악대학 학생의 멘트도 실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19년 까지도 작곡과 조교는 2학기를 앞두고 12장의 강의 개설 신청서를 제출했다. 때문일까 “획일적인 폐강기준으로 소수학과가 번거로움을 겪는 것은 알지만 기준 조정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관련 부서의 답변은 보다 충격적이었다. 노동의 강도를 떠나 그것이 소모적이라면, 또 그러한 노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행정상의 구멍인데 말이다.

세상에 완전한 시스템이란 존재할 수 없다. 시스템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에 낡고 뒤쳐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체돼 있을 수는 없다. 주기적인 보수와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또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덮어놓고 기워보려는 노력이 병관과 다름없다는 사실도 짚고자 한다. 임시방편은 말 그대로 새 시스템 마련을 기다리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학내외의 술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는 한 이는 결코 확대해석도, 단순한 동화도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침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취재수첩

김성수 기자



“기자의 말이 아닌,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취재수첩 가장 앞쪽에 적어 놓은 문장이다. 수습기자 교육을 받았을 때 필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가끔 씩 기사를 쓰기 전, 취재수첩을 꺼내서 이 문장을 되새겨보곤 한다. 1648호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지금부터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한다.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에 들어가면 ‘학생 기자 활동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온 주변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만 혈안이었을 때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절친 두 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으며 대입 이후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당시 나에게 당장의 입시 전쟁보다 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 이 운동장에서 생겼다.

단순히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자가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하다. 기자 활동을 통해 취재원의 생생한 증언을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보다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기자의 역할이다. 이는 나에게 대단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나는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대학주보에 지원서를 냈다.

아직 준비가 덜된 턱이었을까. 그때 기자 활동을 돌아보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린
땀방울이 모여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룬다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싶어서 대학주보에 들어왔지만, 그 마음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새 나는 편집실에서 밀린 과제 하듯 기사를 꾸역 꾸역 써버렸다. 그때 편집실 책상 위에서 쓰인 기사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없었다. 2017년 3월, 입영통지서가 송부되기도 전에 나는 군대에 자원했고 형, 누나, 동기들에게 짐만 남긴 채 도피하듯 대학주보를 빼져나왔다.

내 입장만 생각했었던 철없는 신입생은 이제 복학생이 됐다. 개강하고 며

칠이 지나지 않았던 날, 나는 습관적으로 대학주보 홈페이지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그때 기자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단 강한 충동이 들었다. 기자 모집 마감 이틀을 남겨두고 부랴부랴 지원서를 작성해냈다.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보는 것’, 기자가 되고자 했던 이유인 그 일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바로 ‘경희의 아침을 여는 사람들’이었다. 첫 기사부터 독자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선플 릴레이’를 보며 속으로 이게 꿈인가 싶었다. 새벽잠을 줄이면서까지 기사를 썼지만, 그 시간마저 달콤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연재가 나에게 더욱 특별했던 이유다.

연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아침은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학교가 아침의 햇살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자신의 자리를 초심으로 지켜오고 있는 ‘아침을 여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어느새 창문 밖에서 해가 새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린 그들의 땀방울이 모여 우리학교의 아침을 이룰 것이다.